

#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강숙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Sook Kang  
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대인관계 간의 관계 및 대인관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총 177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은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는 인문학적 소양, 공감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공감능력으로 총 변화량의 21%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대인관계,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humanistic literacy,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77 nursing students from March 4 to 14, 2019.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Humanistic liter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level.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maj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Empathy ability, which accounted for 21% of the varian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are needed to increase Empathy ability.

**Key Words** : Humanistic literacy,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Stud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생은 대학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기

본적인 소양과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

\*Corresponding Author : Sook Kang(skang@cnc.ac.kr)

의 핵심역량으로 '인문학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을 제시하였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대상을 만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3].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상호의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4].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대인관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5]. 효율적인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한 간호대학생일수록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불안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였다[6]. 대인관계능력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간호대학생일수록 낙관적인 사회추구경향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아 스트레스 빈도가 감소하였다[7].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화관람 편수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독서량이 많을수록 대인관계수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8] 문화활동과 같은 인문학적 소양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인간과 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하여 교양인과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자연과학과 더불어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9]. 인문학이 '생각하는 힘',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10]. 간호학과 교육에서 드라마, 문학, 음악, 그림 등이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제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11]. 문학작품을 접하면서 인간의 고통 이해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아졌다[12]. 간호대학생에서 인문학적 소양은 대상자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갖게 하면서 대인관계능력을 높이고 있는 요소인만큼 간호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다양한 관계에서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이 형성되었다[13]. 대인관계에 공감능력의 요소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확장되고 있다[14]. 간호사는 다른 인격체의 감정을 읽어내어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15].

Carper는 감성적 앎이 간호의 예술을 특징짓는다고 하였고, 감성적 앎이란 간호사는 환자가 처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지각하여 환자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16]. 공감은 타인의 정서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정서에 보다 적합하게 반응하는 대리 정서반응이다[17]. 이러한 간호사의 공감은 환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접근하여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줘서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18].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19]. 감성지능과 행복감에서 대인관계를 매개효과로 본 연구[20], 공감교육, 의사소통 등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21,22], 공감능력의 대인관계 영향 요인 탐색 연구[23]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포함시켜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교육에서 인문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인문학적 소양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대인관계 간의 관계 및 대인관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2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7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53으로 산출되었다[24]. 대상자 탈락률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183부 중에서 자료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한 총 17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은 Kim[2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책임기 소양 3문항, 역사 소양 2문항, 문학·철학적 소양 4문항, 예술적 소양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문학적 소양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7이었다.

###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6]가 개발하고 Kang 등[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인지적 공감(관점 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항)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79이었다.

###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28]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하위영역은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

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스러운(또는 원만하지 못한)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또는 매우 원만한)편이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chlein과 Guerney[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3월 4일에서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 도중 철회 가능성,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필로 서명한 후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 시 코드를 부여하여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였고, 자료는 연구자만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와 같이 성별은 여성 154명(87.0%), 남성 23명(13.0%)이었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126명(71.2%), 종교는 '없음' 117명(66.1%), 경제적 수준은 '중간이상' 154명(8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 때문에' 76명(42.9%), '간호사에 대한 호감 때문에' 58명(32.8%), '다른 사람의 권유로' 26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103명(5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2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의 정도

Table 1과 같이 인문학적 소양은 책읽기 소양  $2.25 \pm 0.85$ 점, 역사 소양  $2.95 \pm 0.82$ 점, 문화·철학적 소양  $3.00 \pm 0.89$ 점, 예술적 소양  $1.83 \pm 0.74$ 점, 전체  $2.46 \pm 0.62$ 점,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  $3.70 \pm 0.44$ 점, 정서적 공감  $3.35 \pm 0.41$ 점, 전체  $3.53 \pm 0.34$ 점, 대인관계는 만족감  $3.63 \pm 0.50$ 점, 의사소통  $3.69 \pm 0.53$ 점, 신뢰감  $3.47 \pm 0.50$ 점, 친근감  $3.76 \pm 0.49$ 점, 민감성  $3.86 \pm 0.57$ 점, 개방성  $3.43 \pm 0.52$ 점, 이해성  $3.92 \pm 0.50$ 점, 전체  $3.66 \pm 0.35$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Humanistic Literacy,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77)**

| Variables                  | M±SD      | Mini | Max  | Range |
|----------------------------|-----------|------|------|-------|
| Humanistic literacy        | 2.46±0.62 | 1    | 4.54 | 1-5   |
| Reading                    | 2.25±0.85 | 1    | 4.33 | 1-5   |
| History                    | 2.95±0.82 | 1    | 5.00 | 1-5   |
| Philosophy · literature    | 3.00±0.89 | 1    | 5.00 | 1-5   |
| Art                        | 1.83±0.74 | 1    | 4.50 | 1-5   |
| Empathy ability            | 3.53±0.34 | 2.61 | 4.43 | 1-5   |
| Cognitive empathy          | 3.70±0.44 | 2.36 | 4.79 | 1-5   |
| Perspective taking         | 3.78±0.46 | 2.71 | 4.86 | 1-5   |
| Fantasy                    | 3.61±0.68 | 1.86 | 5.00 | 1-5   |
| Emotional empathy          | 3.35±0.41 | 2.43 | 4.86 | 1-5   |
| Empathic concern           | 3.65±0.54 | 2.14 | 5.00 | 1-5   |
| Personal distress          | 3.06±0.49 | 1.57 | 5.00 | 1-5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3.66±0.35 | 2.68 | 4.80 | 1-5   |
| Satisfaction               | 3.63±0.50 | 1.50 | 5.00 | 1-5   |
| Communication              | 3.69±0.53 | 2.25 | 5.00 | 1-5   |
| Trust                      | 3.47±0.50 | 2.00 | 5.00 | 1-5   |
| Intimacy                   | 3.76±0.49 | 2.00 | 5.00 | 1-5   |
| Sensitivity                | 3.86±0.57 | 2.00 | 5.00 | 1-5   |
| Openness                   | 3.43±0.52 | 2.00 | 4.60 | 1-5   |
| Understanding              | 3.92±0.50 | 2.00 | 5.00 | 1-5   |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차이

Table 2와 같이 인문학적 소양은 경제수준( $t=2.10$ ,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감 능력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는 전공만족도( $F=8.55$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결과,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인문학적 소양은 공감능력( $r=.23$ ,  $p<.05$ ), 대인관계( $r=.18$ ,  $p<.05$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r=.47$ ,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3.5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를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48.20$ ,  $p<.001$ ) 수정된 결정계수는 .21이었다. Table 4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공감능력( $\beta=.47$ ,  $p<.001$ )으로 총 변화량의 21%를 설명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of Humanistic Literacy,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7)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Humanistic literacy |                  | Empathy ability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
|                                 |                               |           | M±SD                | t/F(p)<br>Duncan | M±SD            | t/F(p)<br>Duncan | M±SD                       | t/F(p)<br>Duncan |
| Gender                          | Female                        | 154(87.0) | 2.48±0.61           | 1.10             | 3.54±0.35       | 1.54             | 3.68±0.34                  | 1.52             |
|                                 | Male                          | 23(13.0)  | 2.33±0.67           | .272             | 3.42±0.33       | .126             | 3.56±0.41                  | .132             |
| Age (yr)                        | <20                           | 126(71.2) | 2.50±0.59           | 1.47             | 3.54±0.36       | 0.70             | 3.66±0.36                  | 0.13             |
|                                 | ≥21                           | 51(28.8)  | 2.35±0.67           | .143             | 3.50±0.32       | .486             | 3.67±0.34                  | .900             |
| Religion                        | Yes                           | 60(33.9)  | 2.44±0.63           | 0.37             | 3.51±0.33       | 0.33             | 3.67±0.36                  | 0.06             |
|                                 | No                            | 117(66.1) | 2.47±0.61           | .713             | 3.53±0.35       | .743             | 3.66±0.35                  | .951             |
| Economic level                  | ≥Middle                       | 154(87.0) | 2.50±0.61           | 2.10             | 3.50±0.35       | 0.44             | 3.66±0.35                  | 0.29             |
|                                 | Low                           | 23(13.0)  | 2.21±0.61           | .037*            | 3.50±0.35       | .660             | 3.68±0.35                  | .775             |
|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 According to school records   | 10(5.6)   | 2.58±0.57           | 1.04<br>.387     | 3.66±0.32       | 0.87<br>.481     | 3.57±0.34                  | 2.16<br>.076     |
|                                 | Invitation of others          | 26(14.7)  | 2.64±0.63           |                  | 3.52±0.36       |                  | 3.62±0.41                  |                  |
|                                 | To serve                      | 7(4.0)    | 2.64±0.42           |                  | 3.62±0.20       |                  | 3.95±0.23                  |                  |
|                                 | Because of the nurse's appeal | 58(32.8)  | 2.42±0.62           |                  | 3.55±0.31       |                  | 3.72±0.32                  |                  |
|                                 | Because of employment         | 76(42.9)  | 2.40±0.63           |                  | 3.48±0.37       |                  | 3.62±0.36                  |                  |
| Satisfaction with major         | Very good <sup>a</sup>        | 24(13.6)  | 2.42±0.63           | 0.70             | 3.64±0.32       | 2.57             | 3.83±0.32                  | 8.55             |
|                                 | Good <sup>b</sup>             | 103(58.2) | 2.51±0.64           | .499             | 3.53±0.34       | .079             | 3.70±0.36                  | .000**           |
|                                 | Usually <sup>c</sup>          | 50(28.2)  | 2.39±0.56           |                  | 3.45±0.36       |                  | 3.51±0.31                  | c(a,b)           |

\* $p<.05$ , \*\*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Humanistic Literacy,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Variables                  | Humanistic literacy | Empathy abil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                            | r(p)                | r(p)            | r(p)                       |
| Humanistic literacy        | 1                   |                 |                            |
| Empathy ability            | .23(.002)*          | 1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18(.014)*          | .47(.000)**     | 1                          |

\* $p<.05$ ,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77)

| Variables   | B    | S.E | $\beta$ | t    | p       |
|---|------|-----|---------|------|---------|
| (constant)  | 1.99 | .24 |         | 8.18 | <.001** |
| Empathy ability   | .48  | .07 | .47     | 6.94 | <.001** |
| R <sup>2</sup> =.22, Adj. R <sup>2</sup> =.21, F=48.20 ( $p<.001$ **) |      |     |         |      |         |

\* $p<.05$ , \*\* $p<.001$ 

#### 4. 논의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증진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46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문화·철학적 소양 3.00점, 역사 소양 2.95점, 책임기 소양 2.25점, 예술적 소양 1.83점이었다. 간호대학생에서 책임기 소양 2.09점과 예술적 소양 1.93점을 나타낸 Kim[3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사에서 역사 소양 2.56점, 문화·철학적 소양 2.52점, 책임기 소양 2.16점, 예술적 소양 2.00점을 나타낸 Kim[31]의 연구, 간호사에게 예술적 소양 2.38점을 나타낸 Ha와 Jeon[32]의 연구를 볼 때 간호학생 및 간호사에서 책임기 소양과 예술적 소양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간호사에서 책임기 소양과 예술적 소양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 3교대로 인한 직업의 특성 외에 어떤 특성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 탐색이 필요하다. 소양은 전적으로 타고난 것, 변하지 않는 특성이 아니라 교육에 따라 충분히 증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다[33].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인문학적 소양 중 책임기 소양과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교과목 운영과 교과 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는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내용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의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기에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적절한 인문학적 소양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공감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53점을 나타냈고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고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개인적 고통 순으로 나타난 Kim[3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개인적 고통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의 고통의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때 개인적 고통의 수준에 머무르고 이겨내지 못하면 좋은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상황을 제시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날 때 정서적 공감이 높은 간호사가 필요하므로 정서적 공감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하게 하려면 단순한 이론적 내용을 외우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서적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3.66점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대인관계능력이 3.66점으로 나타난 Kim[20]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3.38점으로 나타난 Oh와 Hwang[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이 있는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34] 교과과정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토의, 역할극, 시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대상자의 대인관계 수준이 중위수준이기 때문에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

인문학적 소양은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여유가 생기가 되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문화활동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대학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서 인문학적 소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Hong[35]의 연구에서 아르바이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해결되어도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활동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려면 문화활동

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학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는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결과, 전공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20]의 연구, Lim과 Lee[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동료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능력이 촉진된다. 대인관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적 소양은 공감능력,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Kim[30]의 연구, 간호사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Kim[31]의 연구, 간호대학생에서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Oh와 Hwang[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앞으로 좋은 간호사로 성장하게 하려면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되는 관점 취하기와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되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Jeong과 Lee[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킴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37].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공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인문학적 소양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측정도구가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기에는 문항이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반복연구를 해서 본 연구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감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는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관계가 있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와 타당화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S. Park & K. S. Jeong. (2013).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49-557.  
DOI : 10.5977/jkasne.2013.19.4.549
- [2] S. K. Lee, S. N. Park & S. H. Jeo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4), 460-473.  
DOI : 10.11111/jkana.2012.18.4.460
- [3]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4] D. L. Miller. (2001). Reexamining team work KSAs and employee performance. *Small Group Research*, 32(6), 745-766.
- [5] M. Jung. (2015). Influence of ego states, self-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14-4620.  
DOI : 10.5762/KAIS.2015.16.7.4614
- [6] H. I. Lee. (2010).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2), 109-118.
- [7] Y. S. Kim & M. Y. Han. (201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501-510.  
DOI : 10.11111/jkana.2015.21.5.501
- [8]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9]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manual with interpretive guidelines for four-year nursing program*[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cited 2019 May]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new/new03\\_02.php](http://www.kabone.or.kr/new/new03_02.php)
- [10] E. K. Jeong. (2016). A study on the way of diffusion and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Korean Literature*, 63, 365-384.
- [11] E. T. Duran & E. Cetinkaya-Uslusoy. (2015). Opinions of nursing students on the art of nursing: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8(2), 308-316.
- [12] J. Ward, M. Schaal, J. Sullivan, M. E. Bowen, J. B. Erdmann & M. Hojat.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7(1), 73-88.  
DOI : 10.1891/1061-3749.17.1.73
- [13]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 10.5762/KAIS.2016.17.1.2634
- [14] M. J. Bae & H. I. Ch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6), 2417-2435.  
DOI : 10.15703/kjc.15.6.201412.2417
- [15] B. H. Kong. (2001).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3), 364-372.
- [16] B. L. Carper. (1978). Fundamental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Advances Nursing Science*, 1(1), 13-18.
- [17] M. L. Hoffman.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 S. Brunero, S. Lamont & M. Coates. (2010).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17(1), 65-74.  
DOI : 10.1111/j.1440-1800.2009.00482.x.
- [19] J. H. Yoo & H. J. Choi.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553-561.  
DOI : 10.5762/KAIS.2019.20.3.553
- [20] S. J.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2), 103-113.  
DOI : 10.12934/jkpmhn.2019.28.2.103
- [21] J. O. Jeong & S. Kim. (2019).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44-356.  
DOI : 10.5977/jkasne.2019.25.3.344
- [22] E. J. Song. (2006).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467-473.
- [23] J. H. Oh & Y. H. Hwang. (2019). The effect of empath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3), 196-203.  
<https://doi.org/10.7586/jkbns.2018.20.3.196>
- [2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of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25] Y. I. Kim. (2014). *The study of resilience of the gifted in science: related with humanistic knowled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 [26]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J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p.85.
- [27] I.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 J. H. Hwang et al.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5), 352-358.
- [28] S. Schlein, B. Gureney & L. Stover.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29]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 195-204.
- [30] M. J. Kim. (2016). Influence of humanities and empathy on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6), 1865-1874.  
DOI : 10.13000/JFMSE.2016.28.6.1865
- [31] Y. S. Kim. (20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humanistic knowledge and empathic ability of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3), 337-348.  
DOI : 10.21742/AJMAHS.2019.03.33
- [32] J. Y. Ha & S. Y. Jeon. (2016).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64-273.  
DOI : 10.5977/jkasne.2016.22.3.264
- [33] Y. J. Jeong & S. Y. Joo.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umanistic style measurement t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5), 453-472.  
DOI : 10.22251/jlcci.2019.19.15.453
- [34] C. S. Yoo, J. H. Kim, M. Y. Kim, S. J. Kim, Y. S. Kim et al. (2012). Factors related to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2), 239-250.

DOI : 10.22650/JKCNR.2012.18.2.239

- [35] S. K. Hong. (2017).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resilience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2), 189-200.
- [36] E. J. Lim & M. H. Lee.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279-286.  
DOI : 10.14400/JDC.2019.17.5.279
- [37] J. S. Ju. (200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강 숙(Sook Ka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전남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4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skang@cnc.ac.kr